과거 잘못 현재 대처법

(에스겔 33:1~33)

10.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11.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13.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14.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15.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16.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과거 잘못 현재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과거 잘못 현재 대처법'

본문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지은 죄와 잘못의 무게가 현재를 누르고 있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탄식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계기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과거에 저지른 무거운 죄가 탄로 나면서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치명적인 실수나 그릇된 선택 혹은 도덕적 탈선으로 생겨난 범죄일 수 있습니다. 또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기나 배신 혹은 모함을 당해서 현재까지 억울한 일을 당

한채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여파가 지금은 물론이고 미래에까지도 현저하게 지배하리라 여겨지는 것을 과거의 잘못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깊이 뉘우쳤으니 다른 식으로 행동함으로써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위해서 그나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뿐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나 억울한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결혼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문제에 대해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 결정적인 실수를 하여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온 가족을 고생에 처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나머지 상대를 밀쳤는데 그대로 죽어버려서 살인자가 되는 일조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십계명에 기록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탐심 등에서 비롯된 후회스러운 잘못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가 큰 나머지 아무 소용도 없는 줄 알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해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고 도망하였을 때에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이게 된 것에 대해 후회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앞서 받아들인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에 대해 후회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후회되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킬 수 있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특별히 후회 없는 삶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이러한 후회도 없을 테니 지금은 맑고 밝은 삶이 되리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마음의 배를 붙이고 사는 한 과거로 돌아가 행동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후회가 생겨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데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인 것이야말로 근원적인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이 뱀으로 비유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뱀은 평생 배를 땅에 붙이고 삽니다. 설령 과거로 돌아가서 잘못을 고칠 수 있을지라도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항상 과거의 잘못에 짓눌리고 찌들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와 모범 시민을 예로 들어봅니다. 인간 세상의 법에 의하면 이들의 처한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모범 시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는 살인자와 모범 시민이나 죄의 무게가 똑같습니다. 마음을 땅에 붙이고 땅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는 한 어떤 행동의 수정도 내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 지폐를 돼지저금통에 넣기 위해서는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접어도 5만 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존재하는 잘못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을 땅의 것으로 채우려 했다는 근본적인 죄악이 펼쳐진 것뿐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접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사회의 실정법에 따라 펼쳐지고 접혀진 것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선민에게는 실정법보다 앞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은 사실 아무런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선민은 항상 실정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죗값을 더 크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행위로 간음을 한 자는 펼쳐놓은 5만 원짜리 지폐이고, 행위로 간음을 하지 않았으나 음욕을 품은 자는 접어놓은 5만 원짜리 지폐인 셈입니다.
애초에 범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려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펼쳐진 지폐처럼 범죄로 표출되었을 때에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법을 잘 지키거나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자신을 선하다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없거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작은 죄를 짓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13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의로운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의로운 행세를 하며 살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였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십계명을 지키며 의로움을 가장함으로써 뱀처럼 마음을 땅에 붙이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근원적인 죄악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과거의 죄가 얼마든지 돌이켜질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물론 과거에 저지

른 행위 자체의 기록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나 억울함으로 생겨난 부정적 힘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이 땅에 붙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땅의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죄입니다. 이에서 돌이키라는 것은 하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마음을 하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통해서 과거의 죄는 무력화됩니다.

본문에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멸망의 칼이 임할 때에 경고를 주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3장 16~21절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파수꾼이 경고 나팔을 불 때에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죄 때문에 죽고 돌이키는 자들은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죄 있는 자들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경고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그의 피 값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비유하시며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를 일깨워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정확하게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한 후에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돌이킴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려주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의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사는 부모가 있다고 해봅니다. 이 부모는 십계명이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도 않습니다. 결혼한 것도 잘못이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파수꾼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자리에 자녀가 들어와 있는 것이 죄악임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외도임을 지적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할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얀 실크 블라우스와 김치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얀 실크 옷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김치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만나면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마음에 배우자나 자녀를 담는 것이 하얀 실크 옷에 김치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마음에 담는 순간 죄가 됩니다.

성전의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법궤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고 사는 것은 지성소에 온갖 잡동사니를 담아두는 창고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실은 그 속에 죄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강단에서 파수꾼의 경고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파수꾼들이 정체성을 잃고 마음의 죄를 용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인 채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 경고하기는커녕 축복하고 평강이 있으라며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교인들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파수꾼에 대한 경고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겠지만, 그들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파수꾼에게는 그들의 피 값까지 얹어서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법을 잘 지키며 의인처럼 살았더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죄인입니다. 지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지 않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써는 범죄 하지 않았을지라도 죗값으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인 채 살았고 행위로도 범죄 함으로 인해 그 여파가 현재에 이르고 있을지라도 지금 마음을 하늘로 돌이킨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우고 싶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과거의 저지른 죄악의 힘은 완전히 무력화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무력화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악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과 모함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 겪은 괴로움까지도 무력화되게 됩니다.
억울함을 풀겠다고 상대를 쫓아다니고 법정에 세운다고 해서 내가 입은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내가 배반당하고 모함을 받고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모함과 사기를 당할 때에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돈으로 마음을 채우려 했기에 돈을 사기 당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인간관계로 마음을 채우려 했기에 배반당하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명예와 인기로 마음을 채우려 했기에 모함을 받고 비난을 당하게도 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비난당하고 사기당하고 모함당한 것조차 나의 죄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 마음을 하늘로 돌이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사기꾼도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사기는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만 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투자했고 그 결과 사기도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마음을 채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사기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배반이 예수님께 피해를 주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배반을 이용하셔서 구원의 사건을 성취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일개 총독이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할 때에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상실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뱀처럼 땅에 마음을 붙이고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에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배반과 사기와 모함은 힘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번제단이 제시되었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과거의 잘못된 죄악이 주님의 죽음과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입고 죗값이 치러졌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서 뱀처럼 마음을 땅에 붙였던 사건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마음의 배를 붙였던 내가 죽는 자리이고, 부활은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마음을 하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이라고 하였고, 또 15절에서는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넘어간 자들에게는 과거의 모든 죄악의 힘이 무력화됩니다. 또 죄악 중에 거하며 당했던 억울한 일들도 무력화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머물기를 포기하고 마음이 다시 세상을 향한다면 과거의 모든 죄와 당했던 억울한 일들은 힘을 되찾고 다시 지금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억울함과 분함이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하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억울함과 분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마음이 땅을 향하고 있는 뱀의 모습을 흉내 내고 있는 죄악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말씀에서 어떠한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단 하나의 계명과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율법과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이를 통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지 아니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삶은 율법과 계명에서 어긋나고 빗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말씀은 마음이 하늘을 향한 증거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졌다면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재미있고 쉽고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갖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서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규례들처럼 지키기가 쉬운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불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억압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이처럼 계명과 율법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달고 맛있게 느껴진다면 마음에 하나님을 갖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설령 전과자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전과자라는 기록은 어쩔 수 없이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전과자 기록을 경멸하고 멸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까지도 과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전과자라는 이력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고 추구하기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까지도 재료로 이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기쁨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은 무력해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와 세상 것을 마음에 담으려고 한다면 과거의 아주 사소한 죄와 잘못까지도 다 살아나서 현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의 과거에 죄와 잘못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오늘도 돌이킴의 실천적 유일한 길인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로 얼룩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심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고 다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